

# 조합을 설립하여 직판장 운영하는 제/천/지/부



▲원용주 제천지부장

경치 좋기로 소문난 충북 충주호 근처에 위치한 제천은 제법 산이 많은 곳으로써 돼지 사육두수가 그리 많진 않지만 모든 양돈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서로서로 엮어져 전국에서 가장 자산이 많고 알찬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모범지부 중 하나이다.

중 산가지라 아직까지는 양돈을 하기에 좋은 제천지부의 회원은 28명이며, '76년에 지역 양돈 축산계가 발전해 대한양돈협회 제천지부가 설립된 이후 '92년부터 시작한 직판장 사업을 주력사

업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92년에 회원 32명이 5천5백만원을 출자해서 시작한 직판장 사업은 호조를 보이면서 '94년에는 회원 39명이 1억2천만원을 출자해서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3개 직판장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그후 '95년에는 정부융자지원 사업으로 직판장 식당 및 한우전문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시내 3군데 축산물 직판장 운영, 학교 급식 제공 등 지부활동 커

5군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제천지부(지부장: 원용주(41세))는 제천지역의 시세를 판가름 짓는 등 축산물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제천의 가정주부는 모두 다 양돈협회 직판장을 알고 있다

원용주 현 지부장은 조합을 만든 계기를 설명하면서 조합을 설립할 경우 비영리 단체인 협회를 보조하여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협동조합에 준하는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등 경영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지부회원이 곧 조합원입니다. 지부장이 조합 대표이사를 겸임하게 되어있죠"라며 조합의 운영



▲농축산물 직판장 및 시식시당



▲'92년 제천 양돈협회 직판장 개장식



▲농축산물 직판장에서는 돼지고기, 쇠고기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발길을 끌고 있다.



◀발골 작업장에는 2명의 발골기사가 있어 직판장과 시식식당에서 소비되는 고기를 직접 공급한다.

을 위해 기업에 준하는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는 흑자결산이 예상된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기존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주부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의 경우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작년에는 이 회원들을 중심으로 돼지고기 요리 강습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지부는 분기별 임시총회를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육대회와 야유회를 함께 개최하여 회원들이 일에 시달린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근심을 잊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부는 직판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5~6개 학교에 단체급식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제천고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등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 1근당 삼겹살 3,300원, 후지는 1,500원에 판매

제천지부는 9월 중순 현재 삼겹살은 3,300원, 후지는 1,500원의 가격(600g 한근 기준)으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식육직판장 3곳(명동점:명락교회 앞, 중앙점:신협 밑 북개천옆, 청전점:구 부강아파트 도로 중간지점)과, 축산물 종합판매장(동문시장 운진슈퍼 위쪽), 농축산물 직판장 및 시식식당(송학면 도화리 개나리 공원묘지 분



◀넓고 깨끗한 시식식당을 통하여 맛있는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

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직판장에서는 고기를 숙성하는 숙성실을 두어 가장 맛있는 고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회원농가들이 번갈아가면서 공급하고 있다.

전체 회원 출하량의 20%정도가 되는 직판장 공급 돼지고기는 지부에서 회원들에게 시중가보다 항상 조금 더 쳐 주기(9월현재 지육 72~73% 적용) 때문에 회원농가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직판장의 인원은 현재 식당에 4명, 작업장에 2명(발골기사), 판매원 2명을 두고 있으며, 사무실에서는 오금희씨가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인원은 지난해 영농조합법인의 구조조정으로 대폭 줄인 인원이라고 한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문경영인인 상무를 두고 양돈가들은 양돈가 본연의 자세로 경영에는 관여치 않았으나, 무리한 유지 관리비로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96년 후반기(10월)부터 전문경영자를

없었고, 처음 직판장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애착을 가지고 노력해온 현 원용주 지부장이 직접 맡아 '97년 이후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IMF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경영을 합리화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른 결과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이 짙은 지금에도 매출량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에는 흑자결산이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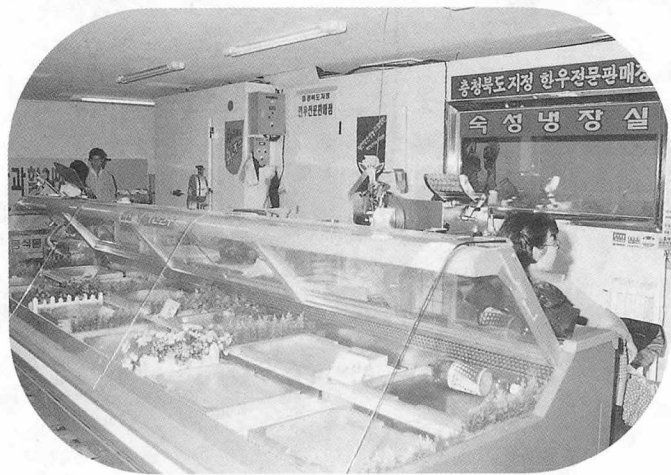
지부는 탄탄한 자산과 승합차, 버스, 냉동탑차, 돼지 운반차량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5개 사업장의 매출은 12~13억에 달한다고 한다.

## 사심없는 지부장을 중심으로 응집력 뛰어나

제천시부의 제10대 지부장이인 현 원용주(41세) 지부장은 처음 직판장 사업을 맡기할 때부터 실무를 맡아 왔으며, 지부 감사로 있다가 '96년 10월부터 실제로 지부장을 역임하여 그의 뛰어난 경영 감각과 추진력을 발휘해 지부를 이끌어 오고 있다.

원용주 지부장은 이후에도 이제 탄탄해 지기 시작한 직판장과 급식, 시식식당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해 회원들에게 출자이익금을 배당해 주는 것은 물론, 양돈호수가 많지 않아 AI센터를 기대하기 힘든 제천에서 지부가 인공수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임원과 시설을 확보해 아직까지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인공수정률을 높혀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천지부도 아직은 별금을 받은 회원 밖에는 없지만 충주호에 가까운 지역은 분뇨처리가 까다로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직판장 사업 또한 매출은 안 줄었지만 자체적으로 이윤을 낮추어 실질적인 이익이 줄은 상태이며, 시식식당은 과다경쟁과 소비부진으로 매출액이 낮아져 나름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지부장은 "현재의 농가부채도 분뇨처리시설에서 대한 것이 상당합니다. 법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시내에 있는 축산물 직판장에서는 맛있는 고기를 싼 가격에 판매한다.



▲지부 안살림을 맡고 있는 오금희씨(왼쪽)은 조합의 살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하게끔 되어 있어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하나, 축사를 늘린다든지 하는 다른 시설들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분뇨처리 시설은 생산시설이 아닌만큼 시설비가 부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가부채는 경감되든지 연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며 축산업의 붕괴가 눈앞에 보입니다. 변명같겠지만, 우리네 농가가 과소비를 했다든지, 무리하게 경영을 잘못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농가의 잘못이 20%라면 정부의 잘못이 80%일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은 정부가 책임을 져 주길 바랍니다"라며 정부에 대책을 강경히 요구했다. <취재 : 조진현> **養豚**